

2026
02.26

주간 제462호

중국 창업

WEEKLY 뉴스

CHINA 창업

KIC 뉴스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

문의 | +86.10.6780.8840 | info@kicchina.org

WEEKLY 뉴스

L4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 토요타와 포니닷컴이아이, 합작 로보택시 첫 양산차 출고	1
중국, 극한 우주 환경서 뇌신호 수집 검증 완료... 의료·우주 탐사 동시 가속화	1
세계 최초 '해상풍력 연계' 해저 데이터센터, 상하이 린강서 본격 가동	3
중국, 멩저우호 비행시험 성공... 최대동압 탈출·로켓 1단 해상회수 입증	4

CHINA 창업

[산업분석] 실제 6G 세상 한 걸음 더... 이론 연구서 시스템검증으로 무대 이동	6
[산업분석] 중앙 1 호 문건, 신에너지차 '첫' 명기... 농촌 시장 확대 본격 시동	9
[기업분석]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징둥(京东)	13
[지역분석] 후허하오터 진산 하이테크구	16

KIC 뉴스

KIC 중국, 『AI 혁신의 심장, 중국 5대 도시군』 발간	19
KIC 중국 창업대회 개최	21

행사 정보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22
------------------	----

WEEKLY 뉴스



L4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 토요타와 포니닷컴에이아이, 합작 로봇택시 첫 양산차 출고	1
중국, 극한 우주 환경서 뇌신호 수집 검증 완료... 의료·우주 탐사 동시 가속화	1
세계 최초 '해상풍력 연계' 해저 데이터센터, 상하이 린강서 본격 가동	3
중국, 멩저우호 비행시험 성공... 최대동압 탈출·로켓 1단 해상회수 입증	4



L4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 토요타와 포니닷컴이아이, 합작 로보택시 첫 양산차 출고

2026년 2월 9일, 토요타(丰田)와 포니닷컴이아이(Pony.ai, 小马智行)가 공동 개발한 '보즈(铂智) 4X 로보택시'의 첫 양산 차량이 출고됐다. 이는 양사의 협력이 기술 검증 단계를 넘어 대규모 양산 및 운영 단계로 확대됐다는 의미다. L4급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토요타의 '모두를 위한 모빌리티(Mobility for All)'와 포니닷컴이아이의 '자율주행의 대중화'라는 비전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즈 4X Robotaxi는 GAC 토요타와 포니닷컴이아이의 공동 개발했으며, 광저우난사(南沙)에 위치한 글로벌 대표 생산기지에서 생산된다. 전용 생산 라인에는 토요타 생산 방식(TPS)과 적시 생산(JIT) 체계가 적용됐으며, 제조 공정은 QDR(고품질·고내구성·고신뢰성) 기준에 맞춰 운영되며, 차량 안전성과 주행 성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보즈 4X 로보택시에는 포니닷컴이아이의 7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됐다. 이 시스템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주요 대도시의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축적된 검증을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고속도로, 교통 허브, 도심 구간 등 대규모 운영 환경에 맞춰 시스템 전반이 최적화됐다. 또한 핵심 부품 전체가 차량용 등급 기준을 충족했으며, 비용은 이전 세대 대비 70% 낮아졌다. 또한 다양한 차종에 적용할 수 있고, 다중 안전 백업 체계도 갖췄다. 보즈 4X 로보택시는 블루투스 기반 도어 잠금해제, 음성 인터랙션, 온라인 음악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양산 차량 출하를 계기로, 양측은 2026년 중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즈 4X 로보택시 1,000대를 운영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토요타가 로보택시상용화를 위해 추진하는 첫 대규모 협력 사례로, 포니닷컴이아이의 자율주행 차량 운영 규모 확대에도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해당 차량은 다양한 운행 조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율주행 산업의 상용화 산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처인지)

중국, 극한 우주 환경서 뇌신호 수집 검증 완료... 의료·우주 탐사 동시 가속화

2026년 2월 9일, 중국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우주 궤도상 검증을 처음으로 완료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베이(西北)공업대학 창홍룡(常洪龙), 지보원(吉博文) 박사 연구팀이 주도했다. 이번 성과는 BCI 하드웨어 개발과 응용 측면에서 중국의 기술이 글로벌 선도권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3차원 원뿔형 구조의 탄소 기반 유연 대뇌피질 전극 어레이를 개발했다. 이 전극은 유연성이 높은 탄소 소재와 3차원 원뿔형 구조 설계를 적용해 뇌 표면에 밀착되도록 제작됐다. 이를 통해 신경 신호 수집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개선했다. 동물 실험에서는 주요 성능 지표가 기존 금속 전극 대비 수백 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뇌 조직 손상 없이 고충실도 신호를 수집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신경 신호를 조절할 수 있음도 확인됐다. 초고자장 MRI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향후 의료 영상 기술과 BCI의 결합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2025년 12 월에는 해당 전극을 '디얼 5 호(迪迩五号)·중국커지청호(中国科技城号)' 우주 실험 플랫폼에 탑재해 우주로 발사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최초로 무선 이식형 BCI 장비의 장기간 우주궤도 운용 비생체(in vitro) 검증을 수행했다.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전극은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체액을 모사한 환경에서 뇌 신호를 수집했으며, 노이즈 수준과 장기간 운용 안정성 등 핵심 성능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는 우주 환경에서의 장기간 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해당 기술은 마비 질환 환자의 운동 기능 회복, 실어증 환자의 언어 해독, 파킨슨병 환자의 신경 조절 등 임상 응용 분야의 하드웨어 기반을 넓혔다고 평가된다. 동시에 장기간 우주 임무 수행 시 우주인의 뇌 기능 모니터링과 건강 관리에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성과의 핵심은 소재와 구조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구현됐다. 탄소 기반 소재는 높은 유연성과 생체적합성을 확보해 장기간 안정적인 접촉을 가능하게 했다. 3차원 원뿔형 구조는 신호 감지 범위와 민감도를 높였다. 또한 무선 전송 기술을 통해 외부 유선 연결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는 한편, 장비 운용 안정성도 개선했다.

해당 기술은 향후 상용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신경계 질환 치료 기술의 혁신을 이끌 것이며,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장기 임무 수행 중 우주인의 건강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스마트 의수·의족과 가상현실(VR) 등 차세대 BCI 기술 발전에도 응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우주 궤도 검증은 관련 기술의 공백을 메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글로벌 BCI 연구 분야에서도 참고 사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향후 이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외우즈인)

세계 최초 '해상풍력 연계' 해저 데이터센터, 상하이 린강서 본격 가동

최근 중국교통건설그룹 제 3 항무공정국(中交三航局)이 시공한 세계 최초 '해상풍력 연계형' 해저 데이터센터가 상하이 린강(临港)에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인공지능 인프라, 해양에너지 활용, 해양공학 융합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는 16 억 위안이며, 전체 설계 용량은 24MW 로, 두 단계에 걸쳐 구축된다. 1단계 시범 공정은 2.3MW 규모로, 육상 통합관제센터 재구축, 수직형 데이터 모듈 1기 설치, 35kV 급 해저 전력 케이블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 프로젝트는 '해상풍력 연계'와 '해수 자연 냉각'을 결합한 이중 기술 구조를 최초로 적용했다. 해수 냉각, 풍력 전력 공급, 모듈형 구축, 지능형 운영관리 체계를 통합해 친환경 전력과 해저 연산 인프라의 연계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설계 기준 전력효율지수(PUE)는 1.15 이하, 재생에너지 공급률은 95% 이상으로, AI 확산으로 연산 처리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된다.

린강(临港)은 파고가 높고 부유 퇴적물 농도가 높은 등 시공 여건이 까다로운 해역이다. 이에 프로젝트 팀은 새로운 해저 데이터 센터 구조를 설계하고, 상부 모듈, 지지 프레임, 데이터 모듈, 강관 파일을 일체형으로 구성했다. 데이터 모듈은 원통형 수직 구조를 적용해 내부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유선형 외형을 통해 파도의 충격을 줄임으로써 전체 구조의 안정성을 높였다.

프로젝트 팀은 총 220km 에 이르는 해상 운송 과정에서 '안장형' 고정 지지대와 두꺼운 고무 패드를 적용해 미끄럼을 방지하고, 고정용 케이블로 보강해 데이터 모듈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해상 설치 과정에서는 매우 좁은 간격 내에서 센티미터(cm) 단위의 정밀한 위치 정합이 요구됐다. 이를 위해 '산항평판호(三航风范号)' 크레인선을 투입하고 GPS와 위치 제어 시스템을 활용해 분당 0.1m의 속도로 하강시켰다. 그 결과 데이터 모듈을 오차 없이 목표 지점에 정확히 설치할 수 있었다.

이로써 해상풍력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이 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되면서, 재생에너지 기반 연산 인프라가 중국 동해 연안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출처: 신민완보)

중국, 명저우호 비행시험 성공... 최대동압 탈출·로켓 1단 해상회수 입증

2026년 2월 11일, 중국 원창(文昌) 우주발사장에서 창정(长征)-10호 저고도 비행 시험과 명저우(梦舟) 우주선의 최대 동압 탈출 비행 시험이 진행됐다. 이번 개발 단계 비행 시험은 창정-10호의 계류 점화 시험, 명저우 우주선의 무고도 탈출 비행 시험, 란위(揽月) 착륙선의 이착륙 통합 검증 시험 성공에 이은 것이다. 이는 중국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번 시험에는 신형 로켓과 우주선이 처음 발사됐고 새로운 발사대가 쓰였으며, 로켓과 우주선의 해상 회수에도 성공했다. 이번 시험에 사용된 로켓과 우주선은 모두 시제기 단계의 기체다. 로켓은 1단 단일 코어 구성으로 시험이 진행됐으며, 앞서 두 차례 계류 점화 시험을 통해 성능을 점검하였고, 우주선 귀환 캡슐 역시 사전에 무고도 탈출 비행 시험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시험에 사용된 기체는 재사용 요건에 맞춰 개조를 거쳤다. 원창우주발사장은 건설과 운영 병행 전략에 따라 시험을 진행했으며, 여러 제약을 극복하며 일정에 맞춰 시험을 실시했다. 또한 착륙장 시스템은 우주선 귀환 캡슐의 첫 해상 착수 및 회수에 대비해, 핵심 기술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훈련과 모의 연습을 실시했다.

11시 00분, 지상 시험 지휘통제센터의 점화 명령이 내려졌고, 로켓은 곧바로 이륙했다. 최대 동압 구간에 진입하자, 우주선은 탈출 신호에 따라 로켓에서 분리돼 정상적으로 이탈했다. 로켓 1단 동체와 우주선 귀환 캡슐은 각각 통제하에 정해진 해역에 안전하게 착수했다.

이번 시험은 창정-10호 로켓이 시제기 단계에서 처음으로 점화 비행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우주선 최대 동압 구간 탈출을 시험하고, 우주선 귀환 캡슐과 로켓 1단 동체의 해상 착수를 검증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원창우주발사장 신설 발사대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점화 비행 시험 임무를 수행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로켓 1단 상승·회수 구간 비행 성능과 우주선 최대 동압 탈출·회수 기능을 점검했다. 또한 각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향후 유인 달 탐사 임무에 필요한 비행 데이터와 운용 경험을 축적했다. (출처: 다상신원)

참고자료

- ◆ 처인지(车印记). 보즈 4X 로보택시 양산 개시, 토요타-포니닷컴에이아이 1,000대 운영 착수
<https://baijiahao.baidu.com/s?id=1856627289715038512&wfr=spider&for=pc>
- ◆ 외우즈인(月舞之音). 기술적 격차 해소, 중국 BCI 우주 궤도 검증 첫 완료
<https://baijiahao.baidu.com/s?id=1856642893994296165&wfr=spider&for=pc>
- ◆ 신민완보(新民晚报). 세계 최초 '해상풍력 연계형' 해저 데이터센터, 상하이서 가동
<https://baijiahao.baidu.com/s?id=1856727025370050877&wfr=spider&for=pc>
- ◆ 다상신원(大象新闻). 中, 유인 달탐사에 한발 더...
<https://baijiahao.baidu.com/s?id=1856837377882919906&wfr=spider&for=pc>

CHINA 창업



[산업분석] 실제 6G 세상 한 걸음 더... 이론 연구서 시스템 검증으로 무대 이동	6
[산업분석] 중앙 1 호 문건, 신에너지차 '첫' 명기... 농촌 시장 확대 본격 시동	9
[기업분석]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징둥(京东)	13
[지역분석] 후허하오터 진산 하이테크구	16



[산업분석] 실제 6G 세상 한 걸음 더... 이론 연구서 시스템 검증으로 무대 이동

중국의 6G 기술 개발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론 연구 중심의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시스템 검증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지난 1월 국무원 신문판공실발표(国新办)에 따르면, 중국은 6G 핵심 기술 1단계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300 건이 넘는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2 단계 기술 검증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이는 6G 연구가 개별 기술 성과를 넘어, 시스템의 통합적 검증 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2030년 상용화를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차세대 이동통신의 핵심으로 꼽히는 6G 기술 개발은 3 단계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 단계에서는 테라헤르츠 통신과 통신·센싱 통합 등 핵심 기술 연구에 집중했다. 최근 착수에 돌입한 2 단계에서는 분산된 기술을 통합해 시스템 차원의 검증에 나선다.

기술 융합 검증과 시제품 개발을 통해 6G를 개념 구상에서 실질적인 구현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전환은 중국의 6G 연구가 통합 혁신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구조와 무선 접속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글로벌 표준 논의에도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전망이다.

주요 기업들도 6G 시스템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은 6G 전송 시스템 시제품 1.0을 공개하고, 서비스 인지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연결 등 3대 핵심 기능을 검증했으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 상황에 맞춰 전송 방식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ZTE(中兴通讯)은 물입형 통신과 지상·위성 통합 네트워크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한 테스트를 마쳤다. 중대역 시험용 기지국에서는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192.4Gbps의 최대 속도를 기록했다.

비보(vivo)는 통신·센싱 통합 기반 위치 추적 기술을 구현해 이동체 정밀 추적 성능을 입증했으며, 네트워크 아키텍처 테스트를 통해 저지연 고화질 영상 전송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처럼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면서 6G 시스템 검증 체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핵심 기술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주요 분야의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센싱 통합 기술은 저고도 비행체 통신의 음영 구간 문제를 개선하며, 드론 물류의 상용화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지상·위성 통합 네트워크 구축도 새로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중궤도(MEO) 위성의 궤도 시험에서는 최대 140Mbps의 하향 전송 속도를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원양 및 극지 지역의 통신 기술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 AI와 네트워크의 결합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능형 수신기와 채널 측정 기술을 적용해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줄임과 동시에 성능 개선을 이뤄냈다. 이는 통신·센싱·연산·지능·보안을 아우르는 6G 다차원 통합 역량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6G 연구개발 경쟁력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특허 보유 규모와 국제 표준 논의 참여도 측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글로벌 6G 핵심 기술 특허 출원에서 중국이 40.3%를 차지하며 전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표준필수특허(SEP) 비중 역시 48%에 달한다. '주파수 공존 기술' 등 관련 기술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논의 과정에 반영됐고, 테라헤르츠 통신과 공중·지상·위성을 아우르는 통합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특허 비중이 43% 이상에 달하는 등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 화웨이(华为)와 ZTE(中兴) 등 주요 기업들도 국제 표준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스템 검증 단계에서는 기술 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들을 해결하고, 6G 적용 환경에 맞는 통합 기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현재 3GPP가 진행 중인 6G 서비스 기준 정립 작업은 약 77% 완료되었으며, 국제 표준 논의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맞춰 중국의 2단계 기술 실증도 국제 표준 논의 흐름에 맞춰 추진될 전망이다. 장비 간 상호 연계와 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개념 단계의 장비에서 시제품을 거쳐 상용화 제품으로 이어지는 개발 단계를 차례로 밟아 나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6G 기술이 2030년 전후 상용화에 들어가고, 2035년에는 본격적인 보급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 시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이론 연구에서 시스템 검증으로의 전환은 중국 통신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저고도 산업과 체화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기술 기반으로 활용되며, 디지털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 상린산이홍(上林三里红). 6G 기술 진화 분기점 도달, 이론 연구에서 시스템 검증 단계로
<https://baijiahao.baidu.com/s?id=1855437865661340402&wfr=spider&for=pc>

[산업분석] 중앙 1호 문건, 신에너지차 '첫' 명기... 농촌 시장 확대 본격 시동

2026년 2월 3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중앙 1호 문건인 <농업농촌 현대화를 목표로 한 농촌 전면 진흥 추진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锚定农业农村现代化 扎实推进乡村全面振兴的意见)>을 발표했다. 이번 문건은 14년 연속 '삼농(농업·농촌·농민)'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에너지차를 스마트 가전, 친환경 전자재와 함께 농촌 소비 확대 분야에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문건에서는 '신에너지차의 농촌 보급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폐가전·가구 등 재생자원 회수 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 연장 차원이 아니라, 차량 구매부터 이용, 회수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농촌 소비 구조가 '친환경·지능형' 제품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의 농촌 시장은 신에너지차의 보조적 수요처를 넘어, 핵심 성장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에너지차의 농촌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문건은 두 가지 핵심 조치를 제시했다. 첫째는 유통 인프라 개선이다. 현(县)·향(乡)·촌(村)의 3단계 유통망을 정비해 물류 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산둥성(山东) 서우광(寿光)에서는 물류단지와 농촌 편의점을 연계해 신에너지차 운송 비용을 약 30% 절감했다.

그 결과, 우링홍광(五菱宏光) MINI EV 등 차종의 농촌 최종 판매가가 도시보다 5~8% 낮게 형성됐다. 둘째는 재활용 체계 구축이다. 농촌 지역의 폐가전·가구 회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구환신(以旧换新)' 보조금 제도를 신에너지차 구매와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장쑤성(江苏) 옌청(盐城)에서는 폐가전 반납 시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충전 할인 혜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폐가전 1대당 200위안의 충전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결과, 해당 지역 신에너지차 판매가 42% 증가하였다.

이번 정책은 신에너지차의 농촌 보급 과정에서 제기돼 온 세 가지 과제를 겨냥하고 있다. 충전 인프라 부족, 사용 비용에 대한 민감도, 중고 가치에 대한 관리 체계 미흡이 대표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농촌 지역의 신에너지차 보급률은 17%에 달한 반면, 충전소 보급 수준은 도시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고, 폐배터리 회수율은 12%에 그쳤다. 정책은 농촌 신에너지 시장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책 지원이 강화되면서 농촌의 신에너지차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 인프라 확충이 맞물리면서 시장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농민 소득 증가가 배경으로 꼽힌다. 2025년 농촌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만 3,000 위안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상업·가정 겸용 차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우링빈과(五菱缤果), 창안(长安) Lumin 등 A0급 모델은 농촌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농촌 가정의 '세컨드카'로 자리 잡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농촌 맞춤형 모델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지리(吉利) 판다 Mini 농촌 맞춤형 모델은 주행거리를 220km까지 늘렸고, 나타 V는 하부 보호 구조를 강화했으며 최저지상고를 30mm 높여 농촌 도로 주행에 적합하도록 설계했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농촌 지역에 설치된 충전소는 3만 2,000 곳으로 집계됐고, 충전기 보급 대수는 50만 대를 넘어섰다. 중국 국가전력망은 허난(河南), 쓰촨(四川) 등 농업 중심 지역에서 마을 단위 충전소 설치를 추진해 농촌 전역으로 인프라를 확충했다. 충전기 이용률은 68%로, 도시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5년 농촌 지역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는 전년 대비 24.3% 증가했다. 이는 도시 증가율의 약 1.8배 수준이다. 도시 시장의 성장률이 12%로 둔화된 가운데, 농촌 시장은 2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 증가분의 35%를 차지하였다. 농촌 시장이 신에너지차 산업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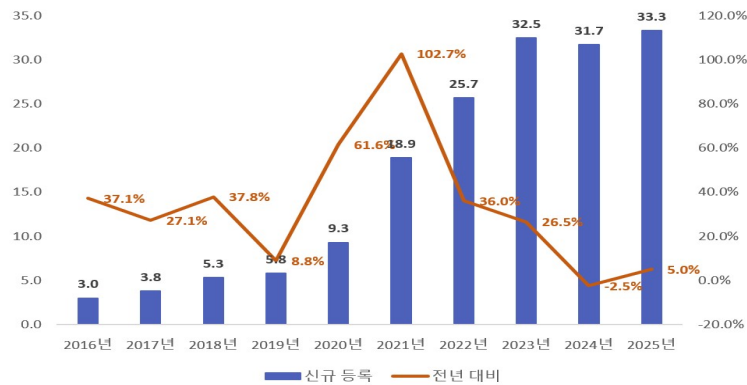
국가세무총국의 세수 빅데이터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2025년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량과 매출은 각각 24.3%, 21.1% 증가했다. 특히 주요 농업 생산지와 농산물 유통 거점에서는 신에너지 물류차와 전동 장비의 도입이 확대되며, 농산물 운송과 콜드체인 물류 분야에서 활용이 늘고 있다.

신에너지차의 농촌 확산은 단순한 판매 확대를 넘어, 친환경·지능형 소비를 축으로 농촌 경제 구조 전환과 맞물려 있다. 에너지 측면에서는 신에너지차 충전과 분산형 태양광, 에너지저장 장치를 결합한 농촌형 마이크로그리드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저장성(浙江) 안지(安吉)에서는 '태양광+충전소' 모델을 도입해 농가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 자체 소비하고, 남는 전력은 전력망에 판매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연평균 약 1만 2,000 위안의 추가 소득을 올리는 동시에, 전력망의 피크 부담도 30%가량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측면에서도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신에너지차 농촌 보급 정책은 충전기 제조와 배터리 회수 등 부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장시성(江西) 간저우(赣州)는 희토류 자원을 기반으로 배터리의 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2025년 기준 산업 규모는 500억 위안을 넘어섰다. 약 8만 명의 고용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전환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과 신에너지차의 결합은 '스마트 농업+신에너지'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내이멍구(内蒙古) 통랴오(通辽)에서는 신에너지 무인 트랙터에 5G 제어 기술을 적용해, 단위 면적당 경작 비용을 40% 줄이고 작업 효율을 3 배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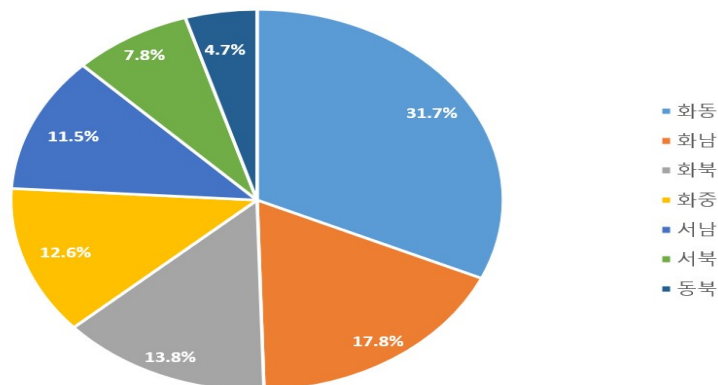
산업 확산 흐름은 기업 등록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치차차(企查查)에 따르면, 중국 신에너지차 관련 기업의 등록 건수는 2023년 이후 3년 연속 30만 개를 넘어섰다. 2025년에는 연간 33만 3,000 개가 신규 등록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2026년 2월 4일 기준으로는 이미 2만 5000 개가 신규 등록된 상태다.

표. 2016-2025년 중국 신에너지차 관련 기업 등록 건수 및 성장률



지역별로 보면 2025년 신규 등록 기업의 31.7%가 화동 지역에 집중됐고, 화남 지역이 17.8%로 뒤를 이었다. 서북 및 동북 지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누적 기준으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관련 기업 수는 매년 늘어 2023년 100만 개를 넘어섰으며, 2026년 2월 4일 기준 중국의 신에너지차 관련 기업은 149만 3,000 개로 집계됐다.

표. 2025년 신규 등록 기업 지역 분포



최근 농촌 시장은 글로벌 신에너지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농업 농촌부에 따르면, 2025년 농촌 지역의 신에너지차 관련 산업 투자액은 1조 2,000억 위안에 달해 '삼농(三农)' 분야 전체 투자액의 18%를 차지했다. 이는 농산물 가공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투자 분야로 집계된다. 맥킨지는 2030년 중국 농촌 지역의 신에너지차 시장 규모가 5,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 세계 농촌 시장의 60%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중앙정부 재정의 2,000억 위안 이상 규모 농촌 신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함께, 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의 현장 적용, 공유 모빌리티 등 새로운 모델의 확산도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신에너지차를 중심으로 한 농촌 경제 구조 변화가 지역 산업 지형과 글로벌 신에너지 사업 구도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 선강자이센(深港在线). 중앙 1호 문건에 신에너지차 포함, 농촌 시장 확대 본격화
<http://hk.szhk.com/2026/02/04/31808442026888157.html>
- ◆ 치차차(企查查). 중앙 1호 문건에 신에너지 자동차 언급, 관련 업체 등록 건수 3년 연속 30만 건 초과
<https://baijiahao.baidu.com/s?id=1856181241418734972&wfr=spider&for=pc>

[기업분석]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징둥(京东)



기업 개요

징둥(京东,JD.com)은 2004년 전자상거래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2014년 5월에는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이는 중국의 종합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운데 미국 증시에 상장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2020년 6월 홍콩 증권거래소에 2차 상장했고, 조달 자금은 공급망 기반 핵심 기술에 투자에 활용됐다. 회사는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 개선과 운영 효율 제고에 주력했다.

2017년부터는 기술 중심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600억 위안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사업 영역은 리테일, 테크, 물류, 헬스케어, 산업 서비스, 기업 서비스, 해외 사업 등으로 확대됐다. 징둥그룹은 실물 기반을 갖춘 동시에 디지털 기술 역량을 내재화한 기업으로, 모든 사업을 공급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물류망, 창고망,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연계한 '3망 통합' 구조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자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협력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용 절감, 운영 효율 개선을 지원하며, 실물 경제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스마트 물류 통합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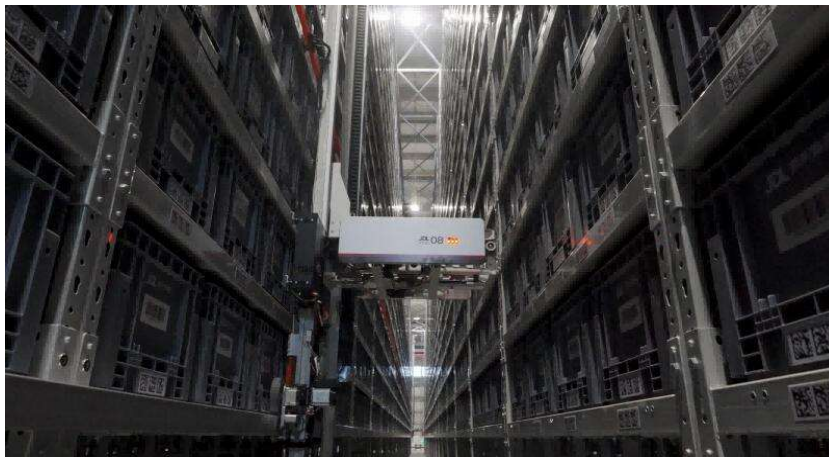
징둥은 AI 알고리즘과 자체 개발 하드웨어를 결합해 창고 운영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최적화하는 스마트 물류 체계를 구축했다. 그 중심에는 고도화된 '징둥 물류 슈퍼브레인 대형모델 2.0'이 있다. 이 시스템은 에이전트 기반 구조를 도입해 지능형 설비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디지털 트윈 기반 의사결정 체계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수천만 개 변수에 대한 연산 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물류 계획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 또한 자체 학습을 통해 실행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사람과 장비 간 협업 효율을 20% 이상 끌어올렸다.

로봇 운영 체계

'슈퍼 브레인' 통합 제어 체계를 기반으로 '랑주(狼族)' 로봇간 유기적인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즈랑(智狼)' GTP(goods-to-person) 시스템 도입 이후, 단위 면적당 처리 효율은 4 배, 입고 및 적재 효율은 6 배 향상됐다. 피킹 정확도는 99.99% 수준으로, 주문 1건당 물류 비용을 50% 가량 낮췄다. '두랑(独狼)' 6 세대 스마트 배송 차량은 L4 자율주행 기능을 갖췄으며, 중국 내 약 30 개 도시에서 상시 운행 중이다. 24 m³ 적재 용량의 VAN 무인 경트럭은 4.2m 급 화물차를 대신해 물류 거점 간 셔틀 운송에 활용되고 있다. '페이랑(飞狼)' 드론은 도심 즉시 배송과 산악 지역 운송을 지원하며, 배송 효율을 최대 90%까지 개선함으로써 라스트마일 배송 체계를 구축했다.



징둥은 향후 5 년간 로봇 300 만 대, 무인차 100 만 대, 드론 10 만 대를 물류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인 물류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엣지 AI

징둥 클라우드는 엣지 AI 분야에서 근거리 엣지 연산 기술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엔드투엔드 지연 시간을 100 밀리초(ms) 이하로 낮췄으며, 전체 추론 작업의 약 90%를 엣지 장비에서 처리함으로써 로봇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5 년 11 월에는 홍콩과기대와 공동 연구실을 설립하고, 지능형 공급망과 체화지능 기술을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산학연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징둥 대형언어모델(LLM)

2023년 7월, 징둥그룹은 산업용 대형언어모델을 처음 공개했다. 이후 2025년 7월 기준 대형모델 브랜드들을 'JoyAI'로 통합하였다. JoyAI는 3B 부터 750B 까지 다양한 규모의 모델 라인업을 갖춰, 산업별 수요에 맞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 언어, 음성, 이미지, 영상, 디지털 휴먼 등 멀티모달 기능을 지원하며, 동적 레이어 지식 증류와 교차 도메인 데이터 거버넌스 등 기술을 적용해 모델추론 효율을 평균 30% 높이고 학습 비용을 70% 절감시켰다.

또한 경량화 설계를 통해 응답 속도도 단축했다. 최신 750B 모델은 업계 주요 모델 대비 경쟁 가능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징둥 클라우드는 JoyAI를 기반으로 고객 상담, 마케팅·구매전환, 디지털 휴먼 등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상담, 운영, 판매 기능을 하나로 묶은 형태로, 현재 7억 명 이상의 징둥 플랫폼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체화지능 플랫폼 'Joy Inside'는 로봇과 AI 완구 등 하드웨어에 공감형 대화 기능을 적용하였다. 현재 40여 개 주요 브랜드와 협업 중이며, 일정 기간 AI 접속 기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또한 'Joy Streamer' 디지털 휴먼은 감정 표현과 상황 대응 능력에서 실제 스트리머의 약 80% 수준에 해당하는 퍼포먼스를 구현한다는 평가다. 현재 4만 개 이상의 브랜드와 함께 데일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고객사 규모 역시 업계 최대 수준에 속한다.

참고자료

- ◆ 징둥웹사이트(京东官网)
www.jd.com
- ◆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北京经济技术开发区). 징둥과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슈퍼 공급망에서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의 벤치마크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 연구소를 설립
https://kfqgw.beijing.gov.cn/ywtdt/kjcgzhgd/cxrh/202511/t20251121_4316724.html
- ◆ 완카 컴퓨팅 파워+실용적인 플랫폼: JD 클라우드의 지능형 솔루션으로 신속한 산업 발전 가능
<http://www.dzzq.com.cn/estate/51871034.html>
- ◆ 중귀징지망(中国经济网). 지능형 장비는 물류 응용 시나리오의 확장을 가속화
http://www.ce.cn/xwzx/gnsz/gdxw/202510/t20251009_2508665.shtml

[지역분석] 후허하오터 진산 하이테크구

개요

■ 허가 일자

후허하오터 진산 하이테크구는 2013년 설립

■ 주요 산업

유제품 가공, 신소재, 석유화학

■ 주요 지표

구분	2022년	2023년	성장률
등록 기업 수	2,194 개	9,419 개	329.3%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68 개	142 개	108.8% ↑
하이테크 기업	44 개	80 개	81.8% ↑
산업 부가가치	441억 위안	571억 위안	29.7% ↑

후허하오터(呼和浩特市) 진산(金山) 하이테크구는 2014년 국무원 승인을 거쳐 국가급 하이테크구로 승격됐다. 진차오(金桥)산업단지, 진산(金山)산업단지, 커지청(科技城)산업단지의 '1구 3단지' 체제로 구성돼 있으며, 승인 면적은 44.2 km²다.



단지별로는 진차오산업단지가 신소재 및 석유화학을, 진산산업단지가 첨단 제조와 첨단 장비 제조를, 커지청산업단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차세대 정보기술을 각각 중점 육성하고 있다. 현재 단지 내 유효 법인 기업은 5,300여 개, 국가 하이테크 산업 기업은 276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규모 이상 공업기업 37개, 과학기술 선도기업 2개, 첨단 기술기업 80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142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도 30여 개 구축돼 있다.

또한 호주 시드니 대학,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 및 니메겐 대학, 서호주대, 킹스칼리지 런던, 중국과학원 대학, 칭화대학, 베이징대학 등과 연계해 박사급 이상 인재 10여 명을 유치했으며, 원사 전문가 워크스테이션 2 곳을 설립했다. 진산 하이테크구는 '신소재 장비 제조'와 '현대 화학' 두 산업 클러스터를 축으로, 실리콘 소재 산업체인, 현대 석유화학 산업체인, 신소재 산업체인의 3대 산업 체인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중환(中环), 페트로차이나(中石油), 후허하오터석유화학(呼石化) 등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업과 자원의 집중을 유도해 클러스터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KIC 뉴스



KIC 중국, 『AI 혁신의 심장, 중국 5대 도시군』 발간	19
KIC 중국 창업대회 개최	21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22



[KIC 중국 포커스] KIC 중국, 『AI 혁신의 심장, 중국 5대 도시군』 발간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는 2026년을 맞아 한국 기술 기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한·중 간 기술·산업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지원의 일환으로, 『AI 혁신의 심장, 중국 5대 도시군』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책자는 중국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5대 도시군을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 생태계와 정책 환경, 주요 기술 트렌드, 그리고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실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시장 개요를 넘어, 실제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산업 정보를 입체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바이두, 도우인, 화웨이 등 중국을 대표하는 혁신 기업들의 성장 사례와 기술 전략을 분석하고, 이들이 속한 도시군의 산업적 강점과 연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자유무역시험구 정책, 금융·투자 환경, 세제 지원 제도 등 첨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도 폭넓게 다뤄, 중국 AI 시장의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 전반에는 베이징 현지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가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최신 데이터가 반영돼 현장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현실적인 진출 전략과 협력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는 이번 발간물이 중국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한·중 기술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산업 관계자들에게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는 현장 밀착형 정보 제공과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양국 간 기술·산업 협력의 가교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KIC 중국 포커스] KIC 중국 창업대회 개최




KIC중국 창업대회

12대 국가전략기술

2026.04.15 CHINA·BEIJING

주최/주관기관



후원기관



참가신청 2025년 12월 30일(화)~2026년 2월 23일(월)

-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
-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info@kicchina.org



장소 베이징 · 중관촌국가자주혁신시범구전시센터 2층 원명홀
(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展示中心2楼 圆明厅)

대회일정

02.24 - 02.27

1차 서류 심사 (27일 서류 심사 결과 통보)

03.03 - 03.06

2차 면접(온라인 심사) (6일 온라인 심사 결과 통보)

03.09 - 03.20

결승진출자(팀) 멘토링 (창업계획서 작성, 중국진출전략, 발표방법 등 1:1 멘토링)

26년 04월 15일

2026년 <KIC중국 창업대회> 결승전 개최
(기업당 10min발표+5min Q&A) 대회언어: 한중동시통역)

26년 04월 16일

중관촌 과학성 산업 시찰 및 방문 교류회

지원혜택

1. 수상자 상금 외 기업 1인에 한해 왕복 티켓 및 대회 기간 동안 숙박 제공
2. 한중 투자기관 네트워킹 지원
3. 중관촌포럼, 푸장혁신포럼, 대만구과학포럼, 중국공신부 창업대회, 중관촌 창업대회, HICOOL글로벌 창업대회, 골든밴더 창업대회 등 참가 우선 지원
4. 결승진출 전 1:1 멘토링 지원 등
(세부 지원사항 QR코드 스캔하여 확인 바람)

협력기관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명칭	기간	장소	분야
2026년(제 6 회) 오가노이드 대회 및 제 3 회 중국 오가노이드 전환 의학 대회	2026.03.20-2026.03.21	상하이	의료건강
보아오 아시아 포럼 2026 연례 회의	2026.03.24-2026.03.27	치웅하이	금융
제 16 회 중국 국제 청정에너지 박람회	2026.03.25-2026.03.27	베이징	에너지
2026 년 제 18 회 국제 석유 및 가스 산업 정상회의	2026.03.26-2026.03.27	베이징	에너지
해양 통신, 네트워크 및 신호 처리 국제 컨퍼런스(MCNSP2026)	2026.03.27-2026.03.29	산야	전자통신
인공지능 및 공학 국제 컨퍼런스(AI+E2026)	2026.03.27-2026.03.29	샤먼	인공지능
제 2 회 인공지능 및 재료 국제 학술대회 (ICAIM2026)	2026.03.27-2026.03.29	창사	인공지능
2026 년 제 8 회 중국 국제 생물의학 학술대회 및 전시회	2026.04.09-2026.04.11	베이징	의료건강
제 12 회 국제 안티몬 포럼	2026.04.09-2026.04.10	청두	에너지
제 6 회 인공지능 및 산업기술응용 국제 컨퍼런스(AIITA2026)	2026.04.10-2026.04.12	충칭	인공지능
2026년 세계 인터넷 컨퍼런스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	2026.04.13-2026.04.14	홍콩	전자통신
GEIAAsia 2026 아시아 태평양 엠보싱 인텔리전스 및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주간	2026.04.14-2026.04.17	상하이	인공지능
제 18 회 국제 디지털 이미지 처리 학회 (ICDIP2026)	2026.04.24-2026.04.26	샤먼	인공지능
제 9 회 국제 환경 및 에너지 공학 컨퍼런스 (IC3E2026)	2026.04.24-2026.04.26	창사	에너지



중국 창업



info@kicchina.org로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중국의 다양한 창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위챗 공식계정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위챗 공식계정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